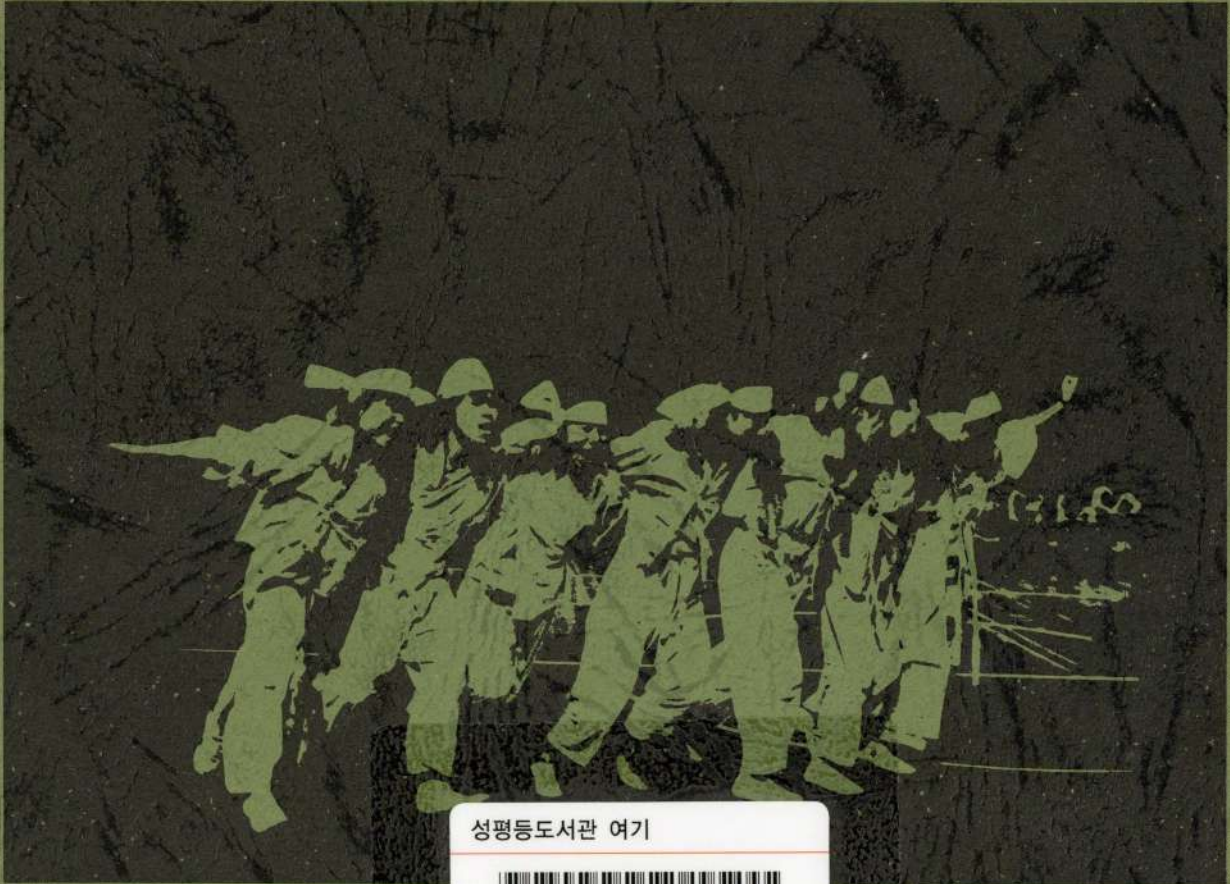


여성문화큰잔치

일하는 여성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397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일시 : 1985년 11월 16일(토), 17일(일)
- 장소 : 여성백인회관(가정법률상담소)
- 주최 : 여성평우회(717-1060)

5.420911
54여성
35

00003972

300

이불을 꿰매면서

박 노해

이불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것이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달라 물달라 옷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체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었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포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좋은 숨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이윤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 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노동자는 이윤 낚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일하는 여성’을 다시 강조하며

여성평우회에서는 ‘일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제2회 여성문화큰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제1회 여성문제큰잔치에서는 남성중심적 지배질서가 강요한 허구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건강한 여성상을 창조해 가는 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다시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택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은 여성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기초적인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일하는 여성은 바로 여성해방의 기본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사회는 여성을 사회적 생산노동에서 배제시키거나, 일을 한다 하여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여성들 스스로가 일을 건강한 삶의 기초로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지긋지긋한 노동으로 여길만큼 여성노동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대다수 일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일하는 여성은 가련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발과 폭로,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여성’을 거듭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과 인내만을 여성들에게 강요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일할 권리를 찾고,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여성들로 거듭나기 위한 장으로써 두번째 여성문화큰잔치의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행사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해방의 공간입니다. 한 개인이 해방되는 공간이며, 나아가 일하는 여성 모두가 삶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잔치마당은 여성노동의 현실을 깨닫는 장인 동시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또다른 실천의 장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작년 서울과 지방에서 수천명의 여성들이 열렬하게 성원해 준 여성문화큰잔치를 더욱 뜻있는 자리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는 일하는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잔치마당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앞날의 과제로 남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다만 작년과는 다른 각도에서 일하는 여성의 구체적 현실과 극복의 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으로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신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은 건전한 여성노동의 삶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85. 11. 16

여 성 평 우 회

이경희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이우정

1984년 여성의 행사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여성의 호응을 얻었던 '여성문화큰잔치'를 금년에도 마련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옴으로, 생명의 귀중함을 피부로 느끼며 생명과 밀착되어 살아온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인류 역사를 지탱시켜 오는데 제1차적이지요, 기본적인 역할을 맡아 인고(忍苦)의 세월을 감내해온 계급도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귀함'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편리함'이라는데 더 가치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합리적'이라는 미명 아래 '가부장제' 문화는 정착을 했고, 남성만이 편리하도록, 남성중심적인 제도와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이 속에서 여성들의 귀중함은 여지없이 파괴당해 왔습니다. 여성들의 능력도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왔고, 개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남성들의 보조자로, 남성에게 기생하는 장식품으로서 주체성 없는 삶을 겪어왔습니다.

여성들은 설 새 없이 많은 일을 해왔으나, 가사노동은 가치 없는 '잡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도 댓가도 못받아왔습니다. 가부장제문화가 아니고 여성들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사회였다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호하는 제1차적인 수단인 가사노동에 제일 큰 가치를 주고, 대우를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만들고 굳혀놓은 제도나 가치체계 속에서 그들만의 아성으로 지켜온 직업전선에 도전하여 그 아성을 깨고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가치관', 즉 오늘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남성들 중심으로 그들만이 편리하게, 또 유리하게 구축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여 그 아성도 깨고, 올바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과제를 인식하고 '평등·평화'의 이념을 내걸고 발족한 여성평우회는 우리 사회의 등불이지요, 없어서는 안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과 빈곤의 원인,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하는 여성이 존경받는 새문화를 창조하여 여성의 인간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평우회와 같은 여성단체들이 이 사회에 많이 탄생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여성단체들이 주체성을 가진 사회세력으로 등장할 때, 그 집단적 세력으로 열악한 여성들의 현실을 바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마련되는 '여성문화큰잔치'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각오와 인식을 가지고 내일의 역사 창조를 향해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이 잔치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사일정표

1. 고사
2. 연극 - 여성문제 인식극
3. 영상강연 - 여성의 노동과 삶, 그 창조적 극복을 위하여
4. 함께 노래 배우기
5. 영화 - 8시간 노동을 위하여
6. 민요판굿 - 도시의 가난한 여성의 뿌리없는 삶과 눈물

상설전시 및 판매

여성관화 전시 및 판매

여성평우회 자료전시

여성관계문헌목록집(보완판) 판매

여성관계서적 판매

차	레
이불을 꿰매면서	2 일하는 여성
모시는 글	3 8시간 노동을 위하여.....15
축사.....	4 빈민여성 사례연구
일정표.....	5 여성농민의 일과 소리.....26
대동비나리.....	6 함께 노래부르기
주제강연 - 여성의 노동과 삶, 그 창조적	연희마당 해설
극복을 위하여	8 여성운동일지.....44
	캘린더를 제작하고서
	49

대동비나리

만주땅이	좁다마다	괴이쩍고	불안한데
들바람도	비껴가게	뎡경뎡경	두동강
야생마를	쫓아가서	동강이가	나는구나
질풍에	노도같이	앞집도	두조각
달리더니	조선쳐녀	뒷내도	두갈래
왜놈군화에	밟혔더니	남은것은	애오라비
긴칼에	찔렸더니	南길따라	가졌더니
화포연만	자욱한데	보리세되로	말바꾸고
난데없는	말굽소리	새우잠에	충내주고
오는구나	오는구나	팔것팔고	내다팔고
쳐녀장군	여장군	하다못해	이몸팔아
큰총어깨	메고	쌀을사고	주문대로
머리카락	휘날리며	회칠하고	웃음웃고
도망가는	왜놈들	하다못해	이몸팔아
하나라도	놓칠세라	쌀을사고	주문대로
끝까지	쫓는구나	미싱박고	다림질하고
보난대로	죽이는구나	하잔대로	하였더니
한데	저것이 무어냐	하난대로	두었더니
온갖나라	오만인종	취급이	물건이요
남의 집	마당인줄 모르고	대접이	집소도 안되고
총질에다	칼질이라	이리저리	막취급에

요모조모 홀대라
 해방네야 해방네야
 둥둥 북을 울려라
 자주고름 입에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만주벌판 말달리던
 조선처녀 여장군
 두 눈이 시퍼렇게
 팔 다리 내뻗치니
 해방일레 해방일레
 쿵쿵 발을 굴러라
 몸 팔라고 시킨 놈
 북채로 물고내고
 잠못자게 일시킨 놈
 늘씬나게 곤장치고
 애냥다고 쫓아낸놈
 딸낳다고 구박한놈
 여자라고 손찌검한놈
 여자라고 희롱한놈
 연세춘추 고하간에
 두루두루 엮어다가
 사대문밖 내다걸고

해방일세 해방일세
 둥둥 둥더쿵
 휘휘 팔을 저어라
 백두산에서 한라산
 찌렁찌렁 울리게
 나가신다 여장군
 둥두웅 두두두둥
 원귀는 풀어내고
 잡귀는 물릿거라
 팔도의 여장군
 해방장군 되얏으니
 고름풀고 사슬끊고
 땀기풀고 비너뽑아
 맞는구나 해방 정토
 소슬소슬 솟아라
 해방무리 장군무리
 어허둥둥 에헤야둥둥
 난장판 신명판
 해방판이 예아니고
 해방날이 지금아니고
 그어드메 그어느때
 있었더냐 말았더냐

여성의 노동과 삶 그 창조적 극복을 위하여

우리 여성들은 일을 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바라며 나아가 일 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삶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삶 또한 노동이요, 노동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여성들은 일하지 않는 인간, 곧 노동하지 않고 먹고사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남편등 남자들이 낮에나가 일을 해서 먹여 살려지는 '부양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여성들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으며 빈둥빈둥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아침부터 밤 늦게 까지 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돌보기, 빨래, 요리, 청소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여자들이 하던 소꿉놀이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놀이'가 아니라 '일'이라는 점에서 소꿉놀이와 다릅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논이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때 여성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은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공들은 엄연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일하지 않는 존재, 직업을 갖는다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 시한부로 일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억압의 문제, 가사노동과 저임금

인간이 그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즉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한 노동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논밭에 씨를 뿌려 농작물을 생산해 내는 노동, 땅 속에서 철광석을 캐내 기계를 만드는 노동, 옷을 만들어내는 노동 등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노동과,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노동할 수 있게 매일매일 뒷바라지 하고 먹이고 입히는 노동 등 출산, 육아, 요리, 빨래 등등의

재생산 노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노동은 주로 남자가, 재생산 노동은 주로 여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은 인류가 존속하고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똑같이 중요한 노동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노동의 산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되어, 누가 노동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산물인 재산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면서 중요한 노동으로 간주되는 반면, 재생산 노동은 여자들이나 하는 하잘 것 없는 노동으로 되어 버리면서, 여성들은 생산노동에서 배제되거나 참가하여도 댓가를 잘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는 욕 아닌 욕 속에는 여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재생산노동, 즉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시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한정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생산노동을 할 때 그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그에 대한 댓가도 똑같은 일을 하는 남자보다 낮은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노동을 해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아버지나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은 여성을, 단지 집 지키는 인형, 결혼이라는

환상에 연연해 하는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삶을 가장 크게 규정하는 것이 여성은 가사노동을 맡아야 한다는 것과 가사노동을 맡는다는 이유로 생산노동에서 남자들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거나,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 할 때, 여성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것과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고자 할 때, 이 두 문제는 여성해방의 기초적 조건으로써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여성의 노동과 삶

그런데 여성의 현실을 찿박하는 「가사노동」과 「저임금」의 문제는 모든 여성들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에게는 「가사노동」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어떤 여성들에게는 「저임금」의 문제가, 어떤 여성들에게는 이 모두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문제 이전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과 노동 속에서 이러한 「가

사노동」과 「저임금」의 문제가 어떻게 여성을 질곡에 빠뜨리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 중산층 여성의 가사노동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과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성들은 중산층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여성과 그 아래의 가난한 노동, 빈민, 농민여성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은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 것이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의 삶이 왜곡되고 노동이 부정되는가를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산층 여성들은 그중에서도 중상과 중하로 나누어 생활조건이 조금 다르지만, 교사, 약사등 소수의 전문직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서 가사노동만 전담하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이들의 학력은 대개 고졸 이상으로, 남편의 고소득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취직을 하지 않고 남편의 월급봉투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미덕과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부들은 가정 밖에서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뭔가 공허하고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이 남편에게 예측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끼는 무능력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주부들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하고, 집안을 잘 꾸밀것인가라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부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하면 남의 가정보다 자신의 가정을 더욱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이홈주의 가족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안락을 위한 재산증식을 위해서는, 아파트와 땅을 투기하며,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또 다른 여성과 그 가족들이 전세, 학월세로 전전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묘연해진다든가, 강제로 집이 철거되어 오갈데 없어지는 또 다른 여성과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지도 않으며,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 주부들은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성공이라는 꿈을 제외하고는 인류의 발전, 민족의 통일,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중대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주부들이 가사노동이라는 재생산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이 그토록 공허하게 되는 것 일까요? 이것은 그 여성들 개인의 잘못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

리 사회가 그들 여성에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 위대한 모성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주부들은 충실히 따름으로써, 가정에 틀어박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발전없고 댓가없는 가사노동에 파묻혀서, 사회에서 잊혀져 있는 존재, 남편을 통해서 만이 사회와 연결되는 소외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사노동은 그 자체가 사회적인 노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일하는 사적이고 이기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는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노동을 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층여성들의 노동

중산층보다 숫적으로 더 많은, 우리나라 여성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가난한 여성의 현실은 중산층 여성이 갖고 있는 가사노동의 전담에서 오는 문제 뿐 아니라, 가난에 쫓겨 힘겹게 노동할 수 밖에 없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소작농이나 영세빈농의 딸들은 시집갈 때 까지는 공장노동자로, 결혼 후 아기를 낳고는 행상이나, 싸구려 가내 하청을 맡는 도시의 빈

민 부녀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난이라는 타고난 굴레는 가혹한 노동의 굴레로서 가난한 여성의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봅시다.

고로 성장을 위한 수출위주의 공업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농업의 위축을 가져왔고 거기에서 농수산물 수입과 저곡가 정책은 농가 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자신의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또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올라온 농민의 딸들은 도시의 노동자가 됩니다. 이들 여성들은 월 10만원 미만의 임금과 하루 평균 10~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노동으로 동물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생산현장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적 폭력들은 이들 여성이 건전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업화, 산업화는 고도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여성은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주역으로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옷, 신발, 라디오, 식품들을 생산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의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여성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눈을 뜨면서 노동운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면, '감히 공순이가', '시집도 못갈 년들', '빨갱이 년들'이라는 세찬 비난과 함께 가혹한 탄압이 돌아오곤

합니다.

또한 저임금으로 인한 영양 부족과 장시간 노동, 나쁜 작업환경 등으로 갖가지 병에 시달리며 진통제로 아픈 몸을 달래며 살아가는 동안,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 내야 하는 건강한 모성은 파괴되고 여성의 몸도 더 이상 노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집니다. 이렇게 되자 지긋지긋한 노동,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해야하는 강제노동에서 벗어나,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편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집니다. 그리하여 결혼에 대한 환상을 꿈꾸며, 자기를 구출해 줄 흰칠한 키의 미남기사를 기대하고, 지금은 떡볶이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혼수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습니다.

이러한 미혼의 여성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결혼하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공장을 그만두지만,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다해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강요된 사직도 허다합니다. 기업은 늘어나는 장기 근속 수당과 퇴직금의 증가, 출산휴가, 잔업을 못시키는 불편함 등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나더라도, 그녀들의 꿈과 기대와는 달리 결혼 후 어떤 식으로든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처지가 결혼, 그리고 출산

과 함께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가난한 여성들은 더욱 과중한 짐을 지게 됩니다. 중산층의 주부처럼 가사나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낮은 수입,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팽개쳐 두고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들 여성들은 기술과 학력이 없기 때문에 최하층의 노동, 즉 한달에 3~4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되는 가내하청, 남자도 힘든 막노동, 경찰과 방법에 쫓기는 행상이나 파출부, 음식점 주방일들을 합니다. 거기 에다 흔히 생활에 억눌리고 실의에 찬 남편의 술주정과 매질이 보태 집니다.

농촌의 여성들 역시 과중한 노동과 농약공해로 인하여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후조리란 꿈도 꾸지 못하며 평생 과중한 노동속에서 삶을 끝마칩니다. 가사와 육아는 즐거운 보람으로서의 남편의 봉양, 자식의 뒷바라지가 아니라, 고통에 찬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노동을 해도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아이들 교육비 대기도 빠듯합니다. 따라서 농촌여성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영구히 못 벗어납니다. 이와같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가난에 신음하는 여성들은 평생 사회적 노동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감에도 불구하고 큰소리 치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못나서 일하러 나가는 비참함

과 열등감에 주눅이 들어 있으며 집안에서도 남편에게 종속된, 남편의 눈치를 보는 가련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가정의 삶을 회복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안심하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사회에서 덜어주어야 합니다.

푸는 힘은 운동에서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과 삶이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극복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중산층 여성들은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소외된 가사노동만을 하는 것이 삶을 비뚤어지게 만들며, 그 다음의 가난한 여성들은 그와 더불어 가난 때문에 평생을 노동의 질곡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중산층 여성들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가난한 여성들은 '정당한 일의 댓가를 지불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사노동은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보다 가사노동이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가정에서 고립되어 행해지는 것이 큰 문제이므로 중산층 여성들은 생

산노동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면서, 가사노동은 공동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경제의 문제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여성들도 자기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임금의 문제, 농축산물의 수입문제, 철거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만 지고 있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문제, 불평등의 문제도 과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 했는지 최근의 여성운동을 검토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1984년 11월 20일 약 200여명의 서울시내 신문방송학과 여학생들이 고용기회에서 남녀차별에 항의하여, MBC방송국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1985년 6월 19일 종로 1가 톰보이 매장앞에서는 11개 여성단체와 18개대 여학생회 등 수백명이 톰보이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폭력행사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생산노동에 정당하게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불량품 교환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기업에 맞서 항의하는 발전적인 소비자운동의 측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결과 임신으로 인한 여성들의 조

기정년에 항의하여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이거나 점차 자신의 노동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아카데미의 공해 모니터 그룹의 움직임,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산층 주부의 삶을 표현해 낸 연극, '이 세계 절반은 나' 등과 함께 공단 주변에서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탁아소 운동, 아파트 자치관리운동 등 중산층 여성의 운동은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산층 여성운동에 비해 가난한 삶의 질곡을 매고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권리와 댓가를 찾고자 하는 가난한 여성들의 운동은 더욱 거세고 당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동에 살고 있던 아줌마들이 철거를 당해 극히 낮은 보상으로 쫓겨날 때 주거권을 주장하며 앞서서 저항했던 일이나, 8시간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싸웠던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의 운동,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놀라운 단결을 통해 임금투쟁을 해 냈던 삼성제약을 비롯한 효성물산 등의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도 소값 폭락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산층 여성이나 노동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곳곳에서 시간을 가리지 않

고 어떤 때는 탄압을 이겨내면서 더욱 강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과 삶이 진정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항의만으로도 안되고, 또 남성노동자와 함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만으로도 안됩니다. 여성으로서 받는 억압과 차별, 사회적 노동에서 소외되는 여성 존재에 대한 거부,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남성보다 낮은 임금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여성들 자신이, 그리고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집단적인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이 여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 넣지 않고, 가난한 삶으로 인해 노동자체가 여성을 질곡으로 몰아 넣는 현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 모두가 자유를 바라고 해방을 갈구하는 가운데 여성운동의 대열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8 시간 노동을 위하여,

…… 12 시간 계속해서 과자를 싸고 나면 손가락에 피가 맺힙니다. 12 시간 내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서 일하면 온몸이 동상투성이가 되고 냉병까지 앓게 됩니다. 어떤 근로자는 150 도의 사탕물을 뒤집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밀가루를 가지고 작업하는 부서에선 가루가 코에 들어가 축농증이 생기고 무좀이나 위장병, 변비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가락 2 개를 찢리고 54,000 원을 받은 친구를 보고 그저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즐거워야 할 작업장이 지옥같기만 합니다. 가난이 원수라 지친 목을 이끌고 하루 12 시간 일하고 출퇴근에 시간을 빼앗기고 밥해먹고 빨래하고 남은 시간엔 잠자기가 바빠 아무런 여가시간도 갖지 못함으로써 보고 듣는 것이 없으니 점점 바보스러워져 회사로부터 더욱더 괘시당하게 됩니다. 아마 소나 말같은 짐승을 우리처럼 하루 12 시간씩 잠도 안재우고 밤일까지 시킨다면 얼마 못가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8 시간 노동을 위하여 -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기록」중에서

주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수출과 외자도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종속적 경제구조는 사회에 뿌리박힌 가부장제 전통과 결합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극심히 열악한 근로조건-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져다주고 있다. 82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3.7 시간으로서,¹⁾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는 서양 대부분 나라들의 33~43 시간에 비해 무려 10~20 시간 길고, 우리나라와 경제사정이 비슷한 대만에서의 48.1 시간보다도 5 시간 이상 긴 것이다. 더욱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남자보다 길다는 보기 드문 기록을 갖고 있다.²⁾ 노총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여성노동자 중 49.4%가 하루 8 시간, 23.3%가 10 시간 이상, 18%가 12 시간 이상씩 일하고 있다. 8 시간 노동의 약 60%가 3 교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 노동시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³⁾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세계

적 추세 속에서도 우리나라만은 유달리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8시간 노동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세계적 기록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고통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

그러면,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여성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가? 우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건강의 파괴이다. 보통 선진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거론될 때에는, 여가 및 문화적 생활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둘째치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필요성 중 하나 - 수면·휴식 - 조차도 제대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과 수면·휴식의 부족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좀먹고 있어 여성노동자들은 애로사항 중 경제문제 다음으로 건강문제를 꼽고 있는 것이다.⁴⁾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은,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아울러 각종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원인이 된다. 노동시간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업재해율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⁵⁾

둘째, 장시간 노동은 모성을 파괴한다. 여성노동자는 재화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재생산 - 임신·출산·육아 - 를 담당하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모성기능은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무제한한 착취로부터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 56 조 야업금지조항-여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57 조 시간외 근무-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이 밖에도 월 1일의 생리휴가, 60 일간의 산전·후 휴가, 일 2 회 30 분씩의 유급수유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명문상으로는 존재할 뿐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일 정도이다. 시간외 근무 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았듯이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더 많은 잔업을 하고 있다. 또한 야간작업도 48%의 여성들이 하고 있으며, 이중 약 46%는 교대제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야근을 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약 29%만이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산전·후 및 수유휴가는 결혼퇴직, 임신퇴직제로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장시간·심야·교대노동은 결혼과 함께 직장을 떠난 여성에게도 평생동안 치유될 수 없는 모성파괴의 상처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으로 다시 직장에 나와야 하는 기혼 여성노동자에게는 더욱더 심한 고통으로 주어진다. 일본에서 72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노동자의 68.6%가 심한 입덧, 후기임신중독증, 유산의 기미 등 임신 중에 이상이 있었고, 70.9%가 유산, 조산, 이상출혈 등 분만시 이상이 있었는데, 특히 심야근무, 교대제근무 등을 하는 여성들 중에 그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아 그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 않으나, 일본과 한국의 근로조건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모성파괴의 실상은 가히 엄청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의 노동여성은 1인 최저생계비의 반밖에 안되는 기아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은 더욱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본제 하에서 임금이란, 노동(시간)의 댓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노동력 재생산비용은 노·자간의 역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섭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임금(시급)이 낮게 책정되어, 잔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보편화는 결과적으로 실제 기본급 인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나이, 낮은 학력,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작용하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함께, 세계 최대의 남녀 임금격차라는 또다른 기록을 안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문화생활 시간의 부족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당장의 의식주의 해결뿐만 아니라,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활동, 교제, 공부, 교양활동, 오락·취미활동 등이 포함된다. 더우기 노동자 계층 전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권리획득 및 조건개선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도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이상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 씻고 밥먹고 자는 시간 이외의 나머지 짜투라기 시간은 소극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휴식에 사용될 수 있을 뿐, 진정한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다섯째, 공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일반 상품의 생산은 사회화되어 있는데 반해, 노동력 재생산의 과정인 가사노동만은 가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가부장적 성별분업이 온존된 상태에서 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일로 되어 있고, 이는 다시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가계보조적인 것

으로 규정시킴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공장에서의 장시간 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으로까지 연장되어 이중의 부담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8 시간 노동제 확립의 조건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간의 단축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요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진정한 8 시간 노동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생계비가 보장되는 최저임금제의 실시이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독신 여성의 최저생계비는 월 16만원이 넘는다. 8 시간 노동에 대한 기본급이 최저생계비(일당 5,400 원)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는 이상 장시간 잔업의 병폐는 사라질 수 없다.

둘째, 시간외 근로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이다. 국제노동기구 조약에는, 시간외 근로는 급박한 사고가 생기거나 기계나 공장설비에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등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 주 12 시간 이내이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그 이상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 구

체적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로서는 일상적인 잔업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주 6 시간 이상의 잔업은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강제 근로 역시 불법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벌칙조항은 반강제적인 장시간 초과근로를 방지하기에는 미진한 것이다.

셋째, 교대제의 철폐 내지 제한이다. 8 시간만 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야노동을 하는 교대근로라면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의 파탄은 계속 뒤따르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 역시 노동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도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꾸준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에 있어,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는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과 단결권 획득의 요구와 함께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지위의 개선을 중요한 운동의 목표로 삼고있는 여성운동은 8시간 노동제의 확립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안고 있는 것이다.

주 1) 한국의 1주 평균 노동시간

〈자료 : 노동부, 통계연감〉

	1975	76	77	78	79	80	81	82	83
제조업	50.0	52.5	52.9	53.0	51.8	53.1	53.7	53.9	55.2
제조업 생산직						54.1	54.9	55.0	56.7

주 2) 제조업 남녀별 노동시간 (1981년)

〈자료 :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연감〉

	평 균	남	여
한 국	53.7	53.4	53.9
일 본	40.9	42.0	38.2
이스라엘	39.0	40.1	35.1
영 국		42.0	37.5
서 독	41.1	42.2	40.0

주 5) 연도별 산업재해자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연도	재해자총수	사망자수	재해율(%)
1980	113,375	1,273	3.0
81	117,938	1,295	3.4
82	136,952	1,230	3.9
83	158,424	1,450	4.0

주 3) 노총, 「조직근로여성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I」, 1978.

주 4) 노총, 위의 자료

당면 애로 사항은 경제문제(38.2%), 건강문제(29.6%), 직장생활(19.5%), 가정불화(5.1%), 이성문제(4.3%), 친구문제(3.2%)의 순이다.

빈민여성 사례연구

도시빈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제3세계 도시빈민들이 그렇듯이, 이들은 공식경제부문에서 소외된 채, 비공식부문에 취업하여 살아가고 있다.

특히 빈민여성들은,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고 산업예비군을 형성,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게 한다.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주택이나 삭월세방에서 기거하며, 상·하수도, 변소 등 기본적인 주거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로 생활한다. 가족 중의 누가 병이라도 걸리면 그나마 모아두었던 약간의 돈마저 모두 날려 버리고 만다.

빈민여성들은 집안일에다가, 생활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게다가 일에 지쳐 난폭해진 남편의 화풀이 대상으로 매를 맞는 일이 허다하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제도교육에서의 소외 등으로 거의 방치된 채로 국민 학교·중학교만을 겨우 졸업, 가게를 돕기 위해 공장 등에 취직을 할 수 밖에 없다. 배우자 역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결국 빈민으로서 삶을 다시 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철거라는 절박한 상황을 서로 힘을 모아 싸워 타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싸움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딛고 있는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잠재된 힘을 발견하고 확인한다. 결국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의 싸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자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편집자 주〉

사례 1.

올해 34세 된 한씨부인은 전라도 남원에서 7형제 중 세째 딸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웠던 한씨부인은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당시 대부분의 시골 처녀가 그랬듯이 서울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동네 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구로공단 내 방직공장에 입사해서 기숙사에 거주하며 1년간 시다 생활을 했다. 그 후 가정집을 빌려 운영하는 영세 요꼬공장에 들어간 것이 인연이 되어 시집가기 전까지 6,7년간을 창신동, 신당동을 전전하면서 요꼬일만 했다. 그러던

중 사촌오빠로부터 당시 목재소에 다니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하고, 남편 거주지인 인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빈둥빈둥 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같은 동네에 사는 시댁에서 쌀도 주며 도와주더니 남편의 실직 상태가 계속되니까 그것마저 끊겼다. 사실 남편 집안도 형제가 일곱이나 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씨부인은 첫아이를 낳고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장에 나가기도 하고 행상이나 막노동판에도 나가는 등 일거리만 있으면 가리지 않고 찾아나섰다. 세째 아이를 낳고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아이를 들쳐업고 생선묵 공장에 나가 일했는데, 종업원도 몇 안 되고 작은 규모로 하는 일이라서 애를 업고 오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눕힐 데도 없고 또 봐 줄 사람도 없어서 하루종일 업고 일할 수 밖에 없었다. 바닥에 널려진 생선을 다듬는 일은 종일 쭈그려 앉아서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등에 업힌 아이는 다행히도 순하기만 해서 보채지도 않고 그저 자다 깨다 할 뿐이었다. 그러나 엄마나 아이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등에 업힌 채 그대로 눈 오줌이나 똥을 금방금방 닦아 주질 못해서 엄마 등과 아이 엉덩이가 짓물러서 한동안 고생했던 적도 있다.

한씨부인은 그렇게 고생을 해 가며 일했지만, 남편은 큰 아이가 12살이 넘도록 단 몇 개월도 한 직장에 계속 있는 적이 없고, 얼마간 일하다가 아프다고 쉬는 날이 많아, 일하는 날보다 오히려 쉬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도 그건 팔자려니 하고 참고 지내지만, 10 여년 나이가 어린 부인에 대한 의심이 심해 견디기가 힘들다. 부인이 일하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집에서 쉬는 남편은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어디 가서 바람피우고 오느냐고 욕부터 해댄다. 말대꾸라고 할라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데, 어떤 때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궈 놓고 자식들도 고스란히 앉혀둔 채 피멍이 들도록 얻어맞기도 했다. 그래도 요즘은 문을 열어 놓고 때리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웃집에 가서 구원병을 청해 오기도 해서 덜 맞는 편이다.

요즘 한씨부인은 옆집 아줌마의 소개로 공사장에 막노동하러 다닌다. 소개받을 때는 일당 7,000 원을 준다고 들었는데, 현장 감독은 우선 일부터 하라면서 일당은 얼마 줄 건지 말하지 않았다. 몇번이고 물어도 일만 열심히 하라더니 1주일이 지난 뒤 준 돈은 일당 6,000 원으로 계산된 것이었다. 한씨부인이 항의를 하자, 감독은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라 값이 더 싼 것이니 이해하라면서, 곧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면 다

른 공사장으로 데려가겠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기업 일의 일당이 싼 것은 그만큼 인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했다. 한씨부인은 억울하긴 했지만, 공사장 일은 다른 일에 비해 일당이 비싼 편이고, 날이 풀리면 이런 일 하기를 기다리는 아줌마들이 많은 판에, 겨우 끼어든 일 놓칠까봐 겁이 나서 더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한씨부인은 아침 6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5시면 일어나 식구들 밥 해놓고, 피곤하고 잠도 덜 깬 상태로 아침 밥도 설친 채 집을 나선다. 14층 내부에 페인트칠을 하는 일 자체는 그다지 힘들지 않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14층을 걸어 올라가 하루 종일 거기 갇혀서 일하고, 조금 더 벌기 위해 밤 8시까지 잔업을 하다 보면 몸은 쇠덩이같이 무겁게 느껴진다. 더구나 아침을 굶고 점심시간인 12시까지 일할 때는 허기에 지쳐 어지럽기도 하다. 다른 공사장에서는 새참도 준다는데 대기업 공사장은 빵 한 조각 주는 일 없이 마냥 짜기만 하다. 200명이 넘는 인부 중에는 3,40대 아줌마가 70여명 되지만 서로 밥줄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이고 보니 친해지지를 않는다.

남편의 수입은 전혀 믿을 게 못되고 부인의 벌이가 전적인 수입원이 되는 살림에, 넷이나 되는 애들 중 누가 심하게 앓기라도 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면, 일

도 못 나가고 며칠 벌어둔 돈도 송두리째 다 까먹어 저축은 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겹기만 하다. 생활비 마련에 급급하다 보니 학교 다니는 세 아이 뒷바라지는 생각도 못한다. 얼마 안 되는 육성회비도 힘에 겹고, 또 옛날 같지 않아서 매일매일 웬 준비물은 그리 많은지 제대로 사주지도 못해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그리고, 한씨부인 일 나가고 나면 하루 종일 엄마없이 지내는 애들에게 주는 군것질 값이나 남편 막걸리 값도 생활비 중 무시 못할 금액이다.

한씨부인은 아직껏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한번도 느껴 보지 못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은 더욱 그렇다. 벌써 몇년째 살고 있는 3만 원짜리 월세방은 식구들이 체구가 작기에 망정이지 비좁기 한이 없고 부엌에는 수도도 없고 하수구도 없어, 이웃집에서 물을 받아다 쓰고, 골목길에 내다 버려야 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다. 또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남편은 집에 있어도 자식들이나 살림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술이나 먹고 때리기까지 하니 통정이 붙질 않는다. 그래서 한씨부인도 피곤하여 자꾸 애들이나 들들 볶고 화풀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은 날이 갈수록 뻔질뻔질 말을 더 안 듣는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동네 아줌마들하고 가끔 막걸리를 먹는데, 어떤 때는 가

숨 속에서 뭐가 막 치받쳐오르는 것같은 고통에 일을 못 나갈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핏병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는 가 보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산다.

사례 2.

대평이 엄마는 충청도 보은에서 났다. 이웃 청원군에 사는 남편과 중매로 결혼해서 1년간 시집에서 살았다. 시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살림도 넉넉치 못하고, 농촌에서 살아 봐야 빛만 지고 별 뽕족한수가 없을 것 같아, 대평이 엄마가 남편을 졸라 61년에 서울로 올라왔다.

2개월된 아이를 뱀 채 후암동 삭월세 방에서 살았는데, 밥상도 없어서 방바닥에다 신문지를 깔고 거기다 김치하고 밥을 놓고 먹었다. 그리고 웬 벌레가 그리 많은지 어디에나 벌레가 설설 기어다녔다. 대평이 엄마는 첫째 딸을 낳는지도 모르고 낳고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남편은 곧이곧대로의 평생원이라 인심 험한 서울에서 벌이가 시원칠 않았다.

날품팔이나 막일을 하던 대평이 엄마는 그걸 그만두고 그래도 장사가 낫겠다 싶어, 새벽에 용산시장에 나가 채소 따위를 떼어다가 식당 같은 데 넘겨주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돈이 모아져 집

값이 싼 송인동으로 이사를 했다. 방 세개짜리 판자집이었는데, 그나마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송인동 집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딸이었다. 그러자 착하기만 한 남편도 심술을 부리고 안 먹던 술을 먹기 시작해 속상하고 미안했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단란하게 살아 갔는데, 둘째를 낳은 지 5개월 되던 때 날벼락같이 철거 계고장이 떨어졌다. 그때가 5.16 나고 얼마 안된 때였다. 남편이 일 나간 사이에 강패같은놈들이 우르르 몰려와 쇠파이프, 함마 같은 것으로 때리고 부수고 밟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던지 정말 피를 토할 것만 같았다. 그건 정말이지 철거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이다. 하루아침에 잠자고 모여 살고 하던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송인동에 살기 시작한 지 2년도 채 못되어 철거를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도 꼭 뭔가를 금방 잃어버린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는 버릇이 생겼었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다. 송인동에 살던 철거민들은 청소차에 실려서 강제로 어디론가 보내졌는데, 나중어야 그곳이 안양천변 뚝방 밑, 그러니까 새로 서울시에 편입된 영등포구 목동이라는 데라는 걸 알았다. 마치 쓰레기처럼 그곳에 내팽개쳐진 것이었는데, 시에서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한 가구당 8평씩의 땅을 정해 주었다. 그때가

11 월 중순경이었다.

가슴이 내려앉고 힘이 쑥 빠져 달아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두 딸을 봐서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힘을 냈다. 남편이 어디서 루핑과 판자 쪼가리를 얻어 와서 움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해는 유난히 추워서 몸이 얼어 붙는 것 같고, 아침이면 일어나기도 힘이 들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나갔다. 용산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일을 계속했는데, 서둘러 새벽에 집을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헛탕이었다. 남편은 미장일을 다녔고, 대평이 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억척스럽다고 소문날 정도로 부지런을 떨면서 일했다. 임신 8 개월 될 때까지도 새벽 장사를 나갔었다.

세째를 뱃을 때는 딸을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무척 걱정을 했었는데, 아들을 낳아서 무척 기뻐다. 그리고 아들 낳았다고는 딱 감고 몸조리를 한다고 열서너 날쯤 쉬고 다시 시장에 나갔다.

목동에는 송인동, 한남동, 후암동, 대방동, 대현동, 여의도 등지에서 쫓겨온 철거민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허허 벌판에 내팽개쳐진 채 시멘트 푸대 하나, 블럭 한 장 못 받아 봤다. 하천변이라 땅이 늘 질퍽질퍽해서 “마누라 팔아서 장화 사 신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전기, 수도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다. 모두들 억척스레 일해서 한푼두푼 모아 여러 달

걸려서 자기 집이라고들 짓고 살았고, 대평이 엄마도 아들이 7 살 되던 해에 겨우 국회의원 선거 덕분으로 수도물맛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국민학교 입학하던 해 장마비로 물난리가 났는데, 초저녁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방까지 다 잠겨 버려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 열흘 만에 물은 빠졌지만 세간이 엉망이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악취와 곰팡이로 한참 동안 고생해야 했다. 정말이지 못사는 사람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해마다 장마 때만 되면 큰 피해는 없었지만 피신을 하곤 해야 했다.

큰딸은 중학교만 마치고 제품공장에 취직해서, 새벽에 나가 10 시에 들어온다. 그렇게 지내던 중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했는데, 겨우 목숨만 건지고, 허리, 척추뼈, 팔목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죄다 까지는 중상을 입고서도 보상은 커녕 치료비도 못 받을 뻔했다. 변변치 못한 사장이 하는 일이어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편 말대로 노가다 의리 지켜주다가 몸만 병신되고 보상금도 못 받은 채 이제는 막노동도 못하고 점포 지키는 일만 한다. 둘째 딸도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고, 아들만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전번 선거철이 돼서야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줘서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데, 또 철거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그 유명한 목동 철거사태였다. 처음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토지를 시에서 모두 매수한 뒤 종합 공영개발 사업으로 신시 가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설마 우리가 사는 집을 대책 없이 철거할려구” “이 땅이야 엄연히 윤 치영 서울시장이 철거 보상비로 내준 땅인데 그냥은 철거를 안 하겠지” 하고들 별 걱정 하지 않았지만, 차츰 “서울시가 장사를 한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집장사까지 한다”, “건물 보상비는 무조건 50 만원씩 일괄 지급해주고 철거한다.” 하는 말들이 떠돌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확실한 묘안도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시청 당국의 처분만 기다리다가 성질 급한 아저씨들에 의해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여기저기 관계기관에 진정서도 내자는 의견이 나와 몇몇 사람들은 벌이도 그만둔 채 뛰어들었다. 대평이 엄마도 장사를 하는 틈틈이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해 가며 힘을 모았다. 그러나 그것도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다. 관계기관에서는 불순분자가 선동을 한다느니, 빨갱이가 뒤에서 조종을 한다느니 하면서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기도 했고, 가옥주와 세입자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했다. 그래도 청천하늘에 날벼락같이 불시에 철거를 당할 처지가 된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정들어 살아왔던 터를 잃게 된다는 불안감과 설움으로 한데 뭉쳐, 시청

이나 구청에 물려가 따지기도 하고 살벌한 전투경찰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 물려가 시위를 하기도 했다. 마을에는 항상 사복경찰과 전투경찰로 들끓었다. 그해 여름 몇년 동안 잘 가동되던 배수펌프 6개가 모조리 고장이 나 또 물난리를 만났다. 신문에서도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떠들었는데, 이걸 순전히 수해를 핑계로 철거민들을 내쫓으려는 수작이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오목교, 양화교로 나가면서 전투경찰들과 맞서 싸웠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연행되었다. 대평이 엄마도 몇 번 연행돼 갔었다. 결국 목동 사람들은 철거를 당해 쫓겨나긴 했지만, 힘을 모아 싸운 덕택으로 건물 보상비 150 만원과 허울뿐이지만 그나마 입주권을 얻게 되었다. 대평이 엄마는 이제 삼양동으로 이사해서 새로 장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도 목동사태로 배운 게 참 많다. 못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끼리 뭉쳐야 하고, 그렇게 뭉쳐서 싸워야만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대평이 엄마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꾹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글은 황석영 작「목동이춤마」에서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여성농민의 일과소리

여성농민들은 몸이 망가질 정도로 억척스럽게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현실에 비관 자살하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여성들은 농촌에서 살기를 기피하고 있다.

과거 해오던 길쌈이며 방아, 밤새도록 바느질하기 등의 일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어느 정도 사라졌으나 농촌 청장년층의 도시유출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을 여성이 메꾸면서 무제한적인 노동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농민의 삶을 제약하며 질곡에 빠뜨리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적 토지개혁의 실패와 함께 대외의존적 수출전략 속에서의 저곡가 및 농축산물 수입정책으로 인한 전반적인 농촌의 빈곤화현상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농촌의 빈곤화현상은 대량의 이농현상과 농업노동력부족현상을 낳게 되어 여성농민의 무제한적인 농업참여를 낳게 된다. 농업노동력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농업경영의 주도권을 가지기도 하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봉건유습의 잔존으로 인해 마을에서나 가정에서의 지위는 열악하기만 하다. 또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서 이중 삼중의 질곡에 빠지고, 농약공해 및 강도높은 노동으로 인해 모성은 손상되고 심신은 더욱 파괴된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모순과 가부장적 지배가 병존하고 있는 현실은, 새마을지도자로 부상되고 있는 수많은 농촌여성지도자의 노동에 지친 모습 속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올해 소값 폭락에 대한 항위시위에서 보여진 여성농민들의 대대적인 참여와 투쟁은 나약한 보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수많은 노동과 고통의 현실속에서 성장되어오고 있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여성농민의 노동현실을 하루일과를 통해 보여주는 김용택씨의 시 한편과 카톨릭여성농민회 주최 「화성지역농민대회」에서 어느 한 여성농민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며 문제해결을 위한 농민 스스로의 입장을 밝힌 글을 실었다.

〈편집자 주〉

너무나 그리들 말더라고

김용택

너무그리 말더라고 너무그리 말더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길어서 밥을짓고
밥넘겨서 재쳐놓고 고추갈아 김치담고
아침먹고 설건이 설건이를 한등만등
고추널고 닭내놓고 콩깨수수 널어놓고
일을가며 염소매고 헌빨래를 빨아널고
고추따다 깨를털고 팔거두고 콩거두고
밤따다가 감을따고 피를뽑다 명거두고
호박따다 버를베고 허리필수 없는데다
너무그리 말더라고 너무그리 말더라고
들판에서 돌아올때 이고지고 들고메고
한몸에다 두세지게 치맛자락 불붙는데
밥차려서 점심먹고 윗목에다 밀쳐놓고
고추뒤적 참깨뒤적 콩팔수수 투덕투덕
참깨들깨 탈탈털어 여기저기 널어놓고
후여후여 새를쫓고 돼지밥에 소밥주고
위이위이 닭을쫓고 눈코뜰새 없는데다
너무그리 말더라고
해저물어 돌아올때 염소새끼 물고와서
고추담고 빨래걸고 참깨수수 콩팔담고
여물쭈고 밥을허고 허리필수 없는데다
이장반장 면서기들 감사온다 야단이며
면장온다 청소하라 군수온다 청소하라
저녁먹고 설건이 썩은고추 가려내어
배죽죽죽 타서널고 호박조각 감잣대를

다듬어서 추려놓고 품앗이로 감을깎네
말도마라 말도마라 일할수록 태산이데
허도허도 너무허네 입때저때 요때저때
그택이택 도로이택 뺏골들이 빠지는데
복지농촌 기계영농 입만열면 그소리
한나라에 살면서 너무그리 말더라고
어떤놈은 그렇고 어떤놈은 이런데요
테레비에 편히앉아 가을피부 영양크림
손톱청소 발톱청소 입맛밥맛 영양식에
미용체조 살빼기에 디스크가 뭇이다요
콘도골프 해외여행 미제일제 프랑스제
이쁜여자 옷벗겨서 이화장품 저화장품
가을정취 농촌풍경 말이좋다 말이좋아
너그덜만 입이있고 너그덜만 사람이냐
테레비에 편히앉아 씨알머리 없는소리
너무그리 말더라고
부엉새가 우는구나 부엉새가 우는구나
서울에간 내딸들아 화장품을 만든딸아
일손들이 모자란다 사우디간 내아들아
사람없다 부엉부엉 일만하고 놀인없다
곡식금은 똥금부엉 돼짓금도 부엉똥금
사람없음 서울가고 놀이없음 여의도가
일손없음 기계사고 억울하면 이사가고
못살며는 잘살아라 알겠느냐 부엉부엉
새벽녘이 올때까지 부엉새가 우는구나
아이고대고 아이고대고 부엉새가 우는구나
너무나 그리들 말아라 부엉새가 우는구나

우리의 살길은 우리가

- 화성지역농민대회에서 -

난생 처음 마이크를 잡으니 떨리기만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텔레비를 틀면 '발라라, 입어라, 아파라, 똥배 나오니 흔들어라', 어쩌다 연속극을 볼라치면 마치 먹지 않아도 사랑만 하면 사는 것처럼 난런데, 이들에게 사흘만 굶어보라고, 그래도 사랑이 첫째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때 가서는 먹어야 산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굶어서도 사랑이고, 스포츠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농민의 실정은 '있서가는 농어촌'이라 하며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우리 동네나 주변을 눈썰고 찾아봐도 그렇게 멋지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미국 농촌이 갑자기 한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 우리 농민의 실정이 올바르게 나오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조차도 바른 소리 하는 것이 마치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홀아비 심정은 홀아비가 알듯이 농민의 심정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이빨도 아픈 놈이 안다고 농민들만이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여성 농민회 회원으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얘기하면 누가 또 거짓말이라고 할 지 모르니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자식들은 제대로 먹이고 공부시키고 있습니까? 몸은 병들지 않고 건강합니까? 두 손은 그만 두고 빗 없이 농사 짓고 계신 분 있으면 한 손만 번쩍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애들 키우는 것만 해도, 도시 아파트 가봤더니 남자 혼자 벌어가지고도 온 식구 시원한 곳에 앉아서, 뭘 먹이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등 하며 먹이느라 야단, 5살만 되도 유치원이다, 미술학원이다 보내느라 야단입니다. 우리는 애들 간식은

고사하고, 들에 갔다 어두워서 들어오면 밥 굶고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 식구가 있는 대로 뛰어다녀도 살기는 힘들기만 합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느라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사철 없이 일하느라 허리가 휘청대도록 땀 흘리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병덩어리 육신과 빗무더기 뿐이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무리 높은데 앉아 금뱃지 달은 사람이라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뿌리가 어떻게 근본이 어떻다는 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잘들 떠들지만, 어째서 진짜 뿌리이고 근본인 농업을 이처럼 천대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늘도 흔들릴 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쭉이면 대풍대풍 하면서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떠드는데 그나마 우리집에서는 텔레비가 잘 안나와 속이 덜터지지만 텔레비 잘 나오는 집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예 요즘 같아서 고장난 텔레비가 마음 편합니다.

정작 올려야 할 수매가는 쥐꼬리 만큼 올려놓고 선전은 0.5% 올린 것이 50% 정도 올린 것 마냥 과대선전을 해댁니다.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것, 수세, 농약, 비료값, 애들 학자금이나 하물며 빨래비누 한장값이라도 오르지만 했지 내려가는 것 본 사람 있습니까? 못봤을 것입니다. 못

봤으면 우렁찬 박수 한 번 쳐 봅시다.

이러니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일손이 부족해서 야단이니까 정부에서는 '미련하게 손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기계로 과학영농하라, 쌀 이자로 돈도 빌려준다' 했지요. 그래서 기계를 들여왔더니 돈은 다 갚지도 않았는데 기계는 옛장수 주게 되어 빚만 덩어리로 남아버리게 되고, 또 '농민이 잘 살려면 한가지만 짓지 말고 이것저것, 논농사, 밭농사 다 하고 소, 돼지도 키워라, 그래서 여기서 밀지면 저기서 메꾸고, 저기서 밀지면 여기서 메꾸면 되지 않느냐, 머리를 써서 농사를 지으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를 위해 축산자금이며 융자금을 막 풀어, 우리들은 고마운 생각에 '머리를 안 써서 그렇구나' 하고는 융자금을 받아, 그것도 외국소를 키워야 남는다 하여 큰 꿈을 안고 기리기리 날뛰는, 새끼도 잘 안 빼고 먹기는 되지게 많이 쳐먹는 외국소를 키운것 아닙니까! 몇해는 소값이 뛰기 시작하여 이걸 보고 너도 나도 소를 키워더니 작년부터 소값이 폭락하여 개값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에서 소를 잡아 소고기로 이빨도 썩혀봤습니다.

정부는 한마리당 40~50 만원에 사와서 농민에게는 80~90 만원에 팔아 1마리당 40~50 만원씩 남긴 이익금이 3천 3백 89 억원이나 되었다 합니다. 이익금은 어디로 증발하였습니까? 또 소값 폭락으

로 손해를 본 농민들의 돈은 약 4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누가 먹은 것입니까? 우리는 감감합니다. 정부는 복합영농 선전만 해대더니 농민에게 장사만 했지 농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었습니까! 농민만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 어찌 분통터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 분통을 박수로 한 번 터트려 봅시다. 국민의 머슴인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을 속이고 등쳐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지농촌 만드는 복합영농이 뭐란 말입니까! 높은 양반들 비싼 고급 양주를 각테일해서 이것저것 섞어 먹어보니 맛이 괜찮으니까 얼른히 술에 취해 농민들도 이것저것 섞어 복합영농 하라는 주장 밖에 더 됩니까! 소 키우면 잘 살거라고 하면서 한 쪽으로는 소고기와 소를 대량으로 수입해와 값을 떨어뜨리니 이에 속은 우리들은 어리석기만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고추금이 오르면 고추수입, 참깨금이 비싸면 참깨수입, 양파가 흉년이다 하면 양파수입 등 뭐든지 조금 오를라 하면 쏘살같이 제까닥 수입을 하니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들 어떤 농사를 지어야 제대로 돈을 만져보겠습니까? 이것이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입니까? 농수산부 장관님 귀 좀 열고 이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고무신도 짝이 있고 짚신도 짝이 있는데 우리네 농촌 총각들, 구리빛 같이 빛

나는 그 모습 너무 멋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시집을 처녀가 없어 야단들이니 짚신작보다 못하단 말이나. 어떤 노총각은 장가들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꽃다운 청춘을 하직하고, 값을래야 값을 수도 없는 빛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진 농가들, 채소값이 폭락하자 하우스 안에서 비통해하며 죽은 어느 농부의 아내, 소값 폭락으로 어머니님 치료비 마련을 못해 비관 자살한 어느 농촌의 가장, 이 모두 살이 찢어지는 농민의 아픔입니다. 오죽하면 귀여운 자식들과 남편, 부인, 부모를 모두 버리고 세상을 등지려 했겠습니까! 누가 이 농민들의 죽음을 보상해 줄 것이며, 누가 이 농민들을 죽였습니까? 이는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쌀, 옥수수, 감자, 대추,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된장, 고추장, 김치 등 400 여종이나 되는 농축산물 수입 때문이요, 울부짖는 농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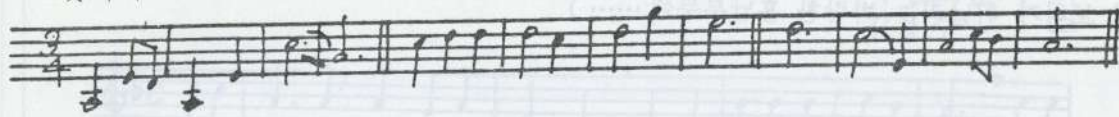
자, 여러분!

그렇다고 천만 농민이 다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 국민이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젠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뺏기지도 물려서지도 맙시다.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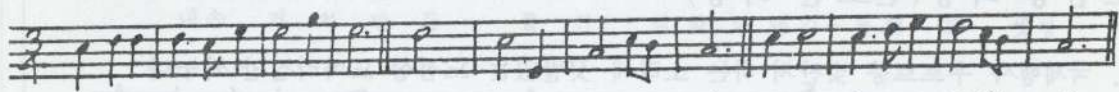
우리 것이다

새재 중에서
김석천 곡

굿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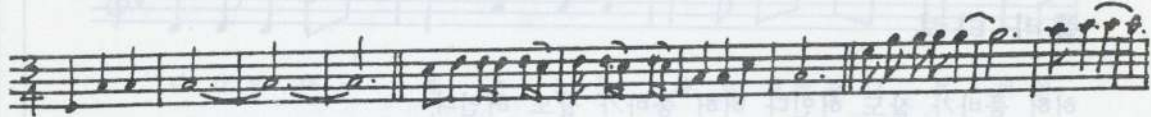
이 기-름 진 땅 - 강가에 모든 들 판 은 우 리 - 것이- 다



저 맑은 하늘도 별빛 도 우 리 - 것이- 다 꽃도 새-도 풀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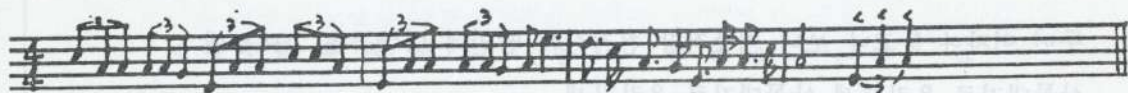


그 한 마리 도 - 우 리 - 것이 다 우 리 - 것이- 다



빼 앓은 자 - - 우리에게서- 이것- 을 빼앗은 자 누구인가 - 가자-

자진 모리)



열어라대문을꽃간을다락을 산더미 처럼쌓인 저쌀섬은 우리것이다 일곱색



찬란한 비단 저것도 우리 것이 다 - -

아리랑 고개 (정선 아라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1. 울어머니 땅 뺏기고 간도로 넘든 고개 이 고개를 다시 넘어 서울로 가네
2. 서울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든 산천 뒤에 두고 울며불며 갑니다.

■ 함께 노래부르기

소작농 타령 (대지의 향구)

일자리도 인정도 없는 서울엔 몸팔러 가나 이 내몸은 소작농 신세 일만 한단다
금순아 갈테면 가라 삼돌이도 갈테면 가라 개간지 언덕에서 나만 홀로 팽이질한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홍남부두에)

노점상 타령 (신고산 타령)

1. 국제행사 우르르릉 빗잔치 하는 소리에 꽃발없는 노점상 도바리짐만 싸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람마 잘~논다 삼십육계 줄행랑
2. 단속반이 호르르릉 노점상 쫓는 소리에 애꿎은 내 틀니 맥없이 빠져 굴러가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람마 잘 빠진다 일중행사로다

품바 타령

허허 품바가 잘도 허인다 허허 품바가 잘도 허인다.

1. 하나 일자나 들고나보니 일자리 없어서 굶어죽을 판에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내밀천은 알몸뚱이뿐 내밀천은 알몸뚱이뿐
2. 두이 이자나 들고나 보니 이땅저땅 천지간에 땅인데 내살곳은 그어드메
산꼭대기로 올라가세 산꼭대기로 올라가세
3. 서이 삼자나 들고나 보니 삼돌아 내 아들이 고대광실을 부러마라
판자집이 기다린다 판자집이 기다린다
4. 너이 사자를 들고나 보니 사고파는 분양권 속에 꽃피우는 프리미엄
철거통에 떼돈버네 철거통에 떼돈버네
5. 다섯 오자나 들고나 보니 오적들이 따로없네 찍어줄텐 뭐라고 했나
이제와서 탄소리하네 이제와서 탄소리하네
6. 여섯 육자를 들고나 보니 육삼빌딩을 부러마라 빗더미만 또 올라간다
개발개발 개소리마라 개발바닥에 땀이 난다 개발바닥에 땀이 난다
7. 일곱 칠자를 들고나 보니 칠십노인 병든몸에 칠전 몽둥이가 웬말이나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한번죽지 두번죽냐 한번죽지 두번죽냐

노동자의 생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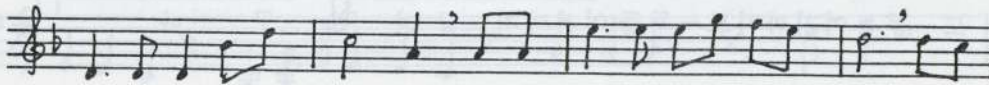
여성노동자 시
김용수 곡



내 손 거 쳐 만 든 - 물 건 백 화 점 에 가 - 득 해 도 셋 방



살 이 내 집 - 에 는 재 고 품 도 하 - 나 없 네 어 찌



다 가 이 내 - 몸 은 노 동 자 로 태 - 어 나 서 거 친



세 상 풍 랑 속 에 서 멀 시 천 대 받 - 는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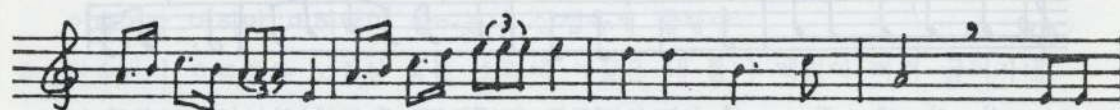
-
8. 여덟 팔자를 들고나 보니 팔자소관이 아니드라 눈가리고 아웅마라
한번속지 두번속냐 한번속지 두번속냐
 9. 아홉 구자를 들고나 보니 구세주가 와도 안될판에 눈을 뜨고 나가보세
배짱으로 버텨보세 배짱으로 버텨보세
 10. 남았네 남았네 장자 한장이 남았네 장하도다 우리민족 사천만에 우리민족
장하도다 장하도다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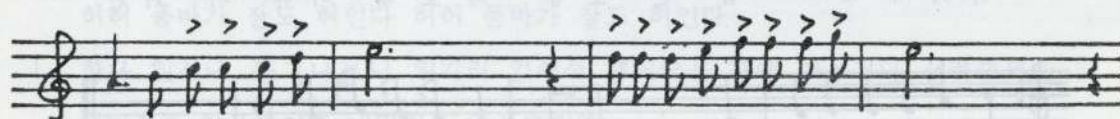
신신경림 시
김김용수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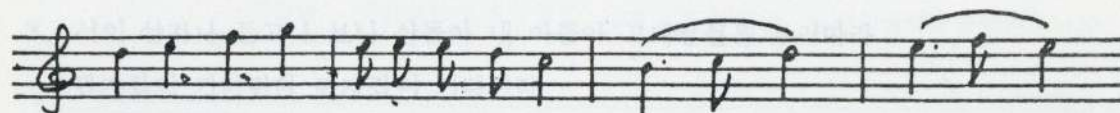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 고 가시밭길 돌 무덤 바위산을 뚫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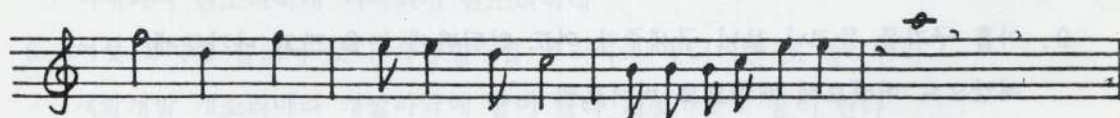
모-두들 여기까지 모-두들 여기까지 달 려 왔 구 나 온나



라 에 울려 퍼 지 는 노래크게 외쳐부르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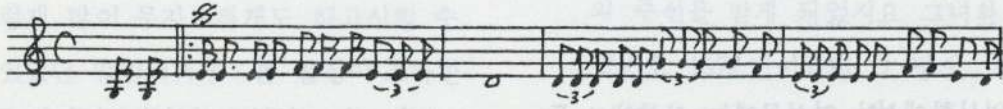


이 제 갈 길 알 았 노 라 고 아 - - 아 - -



모 두 들 여 기 까 지 여 기 모여있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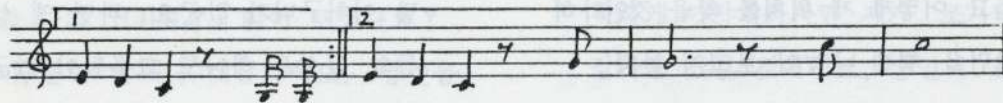
살아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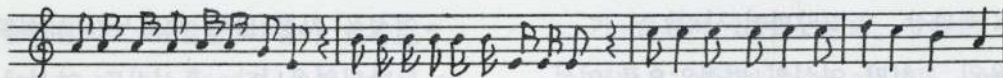
내 가 어렸을적 엄마가 말했어 요 서울에가서돈벌어갖고 시골에와서시집가라
와서 처음 다니던 공 - 장 은 너무나힘들고고달픈데 한달월급은삼만오천
가서있다 오빠와 싸웠어 요 그런후에가정부로가서 5 개월동안일을했었



고 나는 서울이 너무나 좋아 중학교 졸업하 고 서 울 로 올라
원 나는 서울이 너무나 싫어 공 장 이 너무나 무서워 엄 마 에 게
조 나는 공순이란놀림이 싫어 공 장 이 너무나 미워 노 동 자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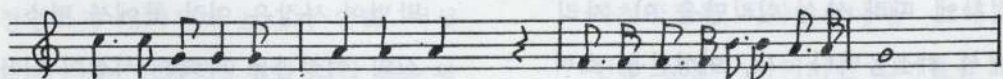
왔 어 요 서 울 돌아갔어요 엄 마 엄 마
되겠다 고 엄 마 엄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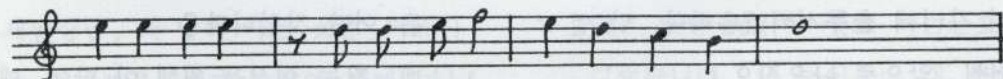
서울 은 너무나 싫어 공장은 너무나 무서워 다시 는 공 장 에 안갈 거 라
그러 나 알겠 - 어요 우리가 노동자 된건 - 우리 들 모두 의 운명 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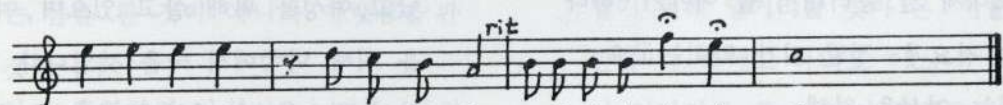
고 - 집 에 고 - 어



떠 한 고 난 과 시련 이 우리 앞 에있을 지 라 도



굳센 용 기 힘을 모아 싸 워 나 가 자



악 의 무 리 물 리 치 는 노동자 가 됩 시 다

여성문제 인식극

산업사회에서의 여성문제는 신성한 노동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일단 제기될 수 있다. 연극에서는 여성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여성문제 인식극을 통하여 보여주며 과연 여성이 추구해 가는 진정한 여성해방이라는 것은 이 험난한 반대 논리를 뚫고 어떻게 제 위치를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여성문제 인식극 대본

(ㄱ: 재판장, ㄴ: 막벌어 사장)

ㄱ: 우리 2천만 여성의 법정앞으로 여성근로자를 가장 많이 해고시킨 주식회사 이브를 상대로 고발장이 날라 들었습니다. 공개재판을 열기에 앞서 고발장에 고발된 내용을 검토하고 재판절차에 따라 사실 심리만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성전용 소비재산업주식회사 대표 막벌어 사장을 이 자리에 출두시키겠습니다. 막벌어씨, 앞으로 나오시오.

ㄴ: 도대체 날 불러내서 뭘 이야기 하려는 거요?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나는 여성을 위해……

ㄱ: 아, 아, 여기는 신성한 법정이므로 그런 사건은 삼가해 주십시오.

ㄴ: 글썄, 내가 전 여성을 위해 밀착없는 팬티와 뚜껑없는 브라자를 개발하느라고 얼마나 골머리를 썩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이런 기가 막힌 도전장을 받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과연 옛 성현들의 말씀은 하나도 그릇됨이 없군요. 너! 자신을 알라.

ㄱ: 시끄럽소. 주식회사 이브는 평소에 여성을 가장 많이 해고시킨 사실로써 고발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성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고발장에 의거, 증거물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본 법정은 묘한 아이러니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벌어 사장은 여러 곳에서 평소 자신의 여성관을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 여성관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ㄴ: 네, 저는 여성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여성을 위해 살고 있으며, 여성을 위해 미국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의 제 여성에 관한 소신입

니다.

ㄱ :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여성만을 위한다는 당신이, 바로 그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무자비하게도 해고시킬 수 있었던 말입니까? 본 법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막벌어 사장의 이러한 소신은 그의 성장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막벌어씨는 홀어머니의 막내아들로써 위로는 일곱 누나가 있었읍니다. 그렇지요?

ㄴ : 네, 그것은 「이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저의 입지전적 자서전에 잘 나와 있지요? 읽어 보셨나요?

ㄱ : 아, 묻는 말에나 대답하시오. 당신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첫째 누나는 가정부로, 둘째 누나는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당신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셋째 누나는 미군 전용홀의 여급으로 넷째 누나는 쪽발이 전용 요정인 청운각의 관광기생으로, 다섯째 누나는 봉제공장으로 그리고 당신을 경영학과 대학원에 보내기 위해 여섯째 누나는 전자공장으로 각각 몸을 팔러 간 사실이 있지요?

ㄴ : 재판장님, 왜 남의 아픈 곳을 찌르시는 겁니까? 셋째 누나와 넷째 누나는 몸을 판 것이 아니라 아랫품을 판 것입니다.

ㄱ : 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후, 이렇

게 오로지 누나들의 희생에 힘입어 학교를 마친 뒤, 당신의 극성스러운 고모의 주선으로 뚜쟁이 막벌어 여사의 주선을 받게 되었지요 그녀의 수첩번호 1572 번이었던, 그 당시 예비역 준장의 고명딸과 결혼, 지금 당신의 아내인 고돌이 여사의 아버지이자 곧 당신의 장인 모씨의 끝발을 적시에 이용하여……

ㄴ : 잠깐, 재판장님. 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장인은 모씨가 아니라 조씨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조가네로 장가를 갔던 것이지요. 장인의 끝발을 운운하는 부분은 저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려는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한데, 저는 장인의 끝발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인의 앞발을 이용한 것입니다.

ㄱ : 아무튼, 당신은 아내의 지참금을 자본으로 하여 마포의 다 찌그러져 가는 적산가옥을 접수, 조그마한 봉제 하청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상당히 나이 어린 소녀들을 고용했지요?

ㄴ : 아!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내 누이들이 내 학비를 벌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온 서울 장안을 다 헤매고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일거리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이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에도 그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각오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공장을 차리면 언제라도 저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공장에서는 결세사에서 열일곱살까지의 어린 여성 근로자들에게 비록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골고루 일자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ㄱ: 그렇게 저임금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던 당신은 70년대 세상을 풍미하던 특혜금융을 받아 부인 고돌이 여사를 내세워 영동의 땅 180 만평을 헐값에 매입하여 약간의 사기를 동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ㄴ: 재판장님,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 가장 보편정당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재판장님께서서는 사회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눈이 어두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러시는 겁니까?

ㄱ: 둘 다 아니요. 그 돈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지금의 이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지전적 자서전 「이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서 보면……

ㄴ: 재판장님, 그 책은 너무 잘 팔려서

재판 발행할 때, 「이브의 동, 서, 남, 북」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서 보시지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재판장님 같은 분께는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ㄱ: 아무때나 나서지 말고 질문에나 대답하십시오. 계속하겠소. 「이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ㄴ: 아하, 동서남북이라니깐요.

ㄱ: 아무튼 동서남북이건 어제 오늘이건 그 증거물에 보면 이렇게 그동안 막벌어 사장을 뒷바라지 해 왔던 일곱 누이의 희생에 감화되어 바로 여성만을 위한다는 당신의 여성관이 세워졌다는데……

ㄴ: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역시 재판장님의 대갈통님은 잘 돌아가는군요. 사실, 제가 맘만 먹었다면 부동산 투기만으로도 엄청난 폐돈을 벌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누이의 희생을 생각해서 오로지 여성만을 위해 나의 전 인생을 바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여성의 대 남성 섹스전략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지요. 밀창없는 팬티, 뚜껑없는……

ㄱ: 에헴, 여기는 신성한 법정이니깐 그런 외설스러운 발언은 삼가하십시오. 본 법정은 그러한 당신의 여성관과 최근에 당신이 취한 작태를 비교해 보면

데, 상당한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당신은 기혼여성에게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 준다고 하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낸 적이 있지요?

ㄴ : 아, 있다 뿐입니까? 여성을 위해 살고...

ㄱ :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신 회사의 전문 기술직에 근무하던 김똑똑씨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대체 무엇입니까? 김똑똑씨가 결혼을 하게 되자 그녀를 저 독도지사로 전근발령시킨 사실과, 최근 시행된 감원조치에서 남자사원의 경우 신참부터 짜르는데 반해 여자사원은 고참순으로 짜른 그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최근 고용된 기혼여성의 경우 일년마다 고용재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 같은 사실은 결국 혈값으로 기혼여성을 이용하고 퇴직금을 아끼자는 심산이 아닙니까?

ㄴ : 재판장님, 퇴직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의 정곡을 찔렀다고 속으로 통쾌해 하시겠지만요. 왜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좀 대국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황의 연속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실업상태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장기불황은 모든 기업마다

감원조치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목줄을 콕콕 누르면서 여자 직원이 그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직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앉았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비인간적,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본인은 자부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그녀 자신 그것을 깨닫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가해의식에 쌓여 있는 것을 본인이 보다 못해 아주 평생 휴가를 준 것입니다.

ㄱ : 당신의 자상한 배려였던 말이지요? 좋소.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이당차양은 왜 해고시켰습니까?

ㄴ :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사무직의 모든 업무는 컴퓨터, 컴퓨터가 개발되어 모두 전산처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사무원의 역할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직장의 꽃으로써 화사한 미소와 늘씬한 각선미로 동료 남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과 타회사의 거래 직원들을 위해 꽃꽂이나 하고, 차나 나르며, 전화나 받고, 안마토써 봉사하는 것만이 중요한 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시든 꽃이 눈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해

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지금 자선 사업이나 하려고 회사를 차려 놓은 줄 알아요? 회사가 뭐 시든 꽃에 물이나 주는 양로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다가 환갑잔치상 차린다고 환갑 보나스 달라고 할까 징그럽다구요.

ㄱ: 주둥아리 닥치시오. 그럼 그 다음은 생산직……

ㄴ: 진정하십시오, 재판장님. 흥분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 다음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을 해고시켰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생산직 여성을 단 한명도 해고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신성한 노동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ㄱ: 그렇게 계속 오리발만 내밀 작정이오? 좋소, 그렇다면 당신네 회사에서는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ㄴ: 우리 회사에서는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모성보호라든가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 탁아소 시설 등에는 일체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은 남녀의 동일한 노동조건에서부터 그 근간이 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성보호라는 논리는 곧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허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ㄱ: 결국 모성보호 조항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인데, 아 그렇게 작업조건이 나빠서야 어떻게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ㄴ: 제가 언제 강제로 일하라고 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사회라 이 말씀입니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어찌다가 생기는 임신부를 위해 회사의 작업 라인을 몽땅 임신부 체제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ㄱ: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해고시킨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ㄴ: 그럼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저는 항상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절대로 여성자신이 스스로 여성의 신성한 노동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성인권 외치기 이전에 여성의 노동권을 수호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애달린 여자의 경우는 차마 흠, 흠... 집에 두고온 애만 생각하다가 그만 미싱바늘에 손가락이 마구 콕콕 찢리고는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몹시 깊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가끔 이런 충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끼 덜 먹드래도, 고기국 먹고

싶을 때, 생선국을 먹더라도 아이 고
생시키고 자기도 못할 짓 하면서 냉
가슴 팍팍 썩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
애나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나 절대 해고나 권고사직시킨 적
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여성인력이 집중된 생산직 여성의 신
성한 노동권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
나침이 없는 걸요?

1: 그렇게도 여성의 노동권을 신성시 해
온 피고가 어떻게 이브의 제3공장을
폐업시킴으로서 천여명의 여성노동자
를 하루아침에 간접적으로 강제 해고
시킬 수 있었던 말ियो.

“과업하면 생각나는 고년들
언제나 말이 많던 고년들
만성불황 회사사정 아랑곳 없이
임금인상 요구하던 고때 고년들
말썽많은 민주노조 박살을 내려고
일찌감치 회사문을 닫아 버렸지
그러니까 실직자가 쏟아졌지
일감은 하청업체에 주면 되지
기술없는 너희들은 어디로 갈꺼냐
주는대로 받으면서 잠자코 있으랬지”

2: 현명하신 재판장님. 저는 사법권의
부당한 월권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마구
그런 걸 묻는거요? 나는 정치문제

에 관한 사항은 대답할 의무가 없소
여성문제에 대해서만 물어 보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대다
수 선량한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
소.

“나가봤자 고생한다 입닥치고 집에있자
잊지말자 남편출세 상기하자 섹스어필
꺼진불도 다시보자 목숨걸자 자식농사”
순진한 주부들이여 괜히 이런데
나와서 물들지 말고 당신의 영원
한 직장인 가정이나 철통같이 방
비하십시오. 요즈음 매일같이 신문 사
회면에 나오는 청소년문제가 다 왜
생기는 줄 알아? 여성단체 쫓아다
니면서 주둥아리만 까는 것보다야 남
편에게 써비스 잘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참여라구. 당신들 같이 시끄러워
서야 어떻게 여자를 쓸 수 있겠소?
우리 주식회사 이브에서는 내년부터
절대로 단 한명의 여성사원도 뽑지
말아야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구
생기는거 있지? 아, 정 그렇게 일
이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거든 남자
들이 만든 회사에 쫓아 다니면서 써
달라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여자들 스
스로 돈을 모아서 여자들 스스로 회
사를 차려서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에잇!
재수없어!

8 시간 노동을 위하여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는 제과업계의 선두주자로서 2700여 종업원 중 2000여 명이 여성근로자이다.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1주일에 한번씩 주야를 교대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도 일당제가 아닌 도급제로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비뚤어지도록 일을 해야만 했다. 더우기 1976년까지만 해도 일요일에 쉬기는 커녕 18시간의 곱배기 노동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름 뿐인 노동조합은 이런 조합원들의 가혹한 노동조건을 외면, 이의 시정을 건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모여 곱배기 노동을 없애기 위해 일요일의 특근거부운동, 껌부의 기계수당받기운동 등을 벌여 요구조건을 따내, 부분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생활패턴을 파괴시키는 주야 2교대 12시간 노동과 도급제는 이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이었다.

1979년 초 노조와 회사측에 도급제 철폐 및 8시간 노동제를 건의하였으나 7월초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어 비스켓부 포장반 A·B조 200명이 잔업을 거부하

였다. 8월초에는 껌부, 캔디부, 카라멜부의 약 6~700여명이 잔업을 거부하고 정시에 퇴근하자 회사측은 남자 노동자를 사주, 8시간 노동투쟁을 폭력으로 저지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8시간 노동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이 사회문제화 되자 회사는 다시 가족이나 친지, 소개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사표를 쓰게 하거나 12시간 노동을 강요하였다. 이런 탄압책으로 많은 동료들이 강제사표로 직장을 떠나거나 12시간 노동의 굴레에 다시 얽매이게 되었다. 9월이 되자 곳곳히 버터 나가는 노동자는 15~20명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적은 수지만 외롭게 잘 버텼다.

이런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YH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은 회사에서는 드디어 ‘80년 3월부터 임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8시간 노동을 실시하겠다’는 언약을 하였다.

80년 3월에 실시된 8시간 노동제는 동종 타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좋은 선례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싸움을 영화로 재현한다는 것은 정말 역부

죽임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보람된 점이라면 직
접 투쟁을 주도해 온 여성노동자들의 생
생한 육성을 담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미

흡하나마 이러한 기록작업들은 좀더 보완
된 형태로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
투른 작품이지만 따끔한 질책을 바라면서
내 보인다.

■ 연희마당/민요판굿

도시의 가난한 여성의 뿌리없는 삶과 눈물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 가난한 여성들이 정착지를 잃
고 떠밀려 다니는 절박한 삶의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겪어야 하는 고
통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뿌리내리고자 하는 질긴 여성의 몸
부림을 노래, 민요, 춤 등으로 엮은 판굿
이다.

첫째거리 : 우리 것이다 (출판)

신경림 시 「새재」 중에서 발췌한 민요
와 춤으로 엮어 본다.

“이 기름진 땅, 강가의 모든 들판은 우
리 것이다.

저 맑은 하늘도 별빛도 우리 것이다.

꽃도 새도 풀벌레 그 한마리도 우리 것
이다.

빼앗은 자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는
자 누구인가, 가자.”

둘째거리 : 노점상타령 (민요판)

농사짓는 것 이외는 아무런 기술도 없
는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여성이 도시로

밀려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노동의 현실을 민요로서 묘사해 본
다. 항상 단속반을 피해 이리 쫓기고 저
리 쫓기는 뿌리 뽑힌 삶 속에서도 절망하
지 않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돌보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
실하고자 하는 빈민여성들의 애환이 담겨
져 있다.

세째거리 : 아가의 녀을 달래며 (굿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담당해야 하므로
어린이들을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
는 현실을, 한 아가의 죽음과 어머니의
한으로 고발한다.

네째거리 : 어디로 가란 말이냐 (출판)

20 여년전 도시재개발에 의해 쓰레기차
에 실려 황량한 새 정착지에 버려진 후 잡
초처럼 그 땅에서 다시 뻗어나와 시민으
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개발로 또 다시 쫓겨 나가야만
하는 철거민들의 처지와 이에 항거하여 자
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를 출판으로 엮어 본다.

여성운동일지

1985년 1월부터 11월 1일 현재까지의 여성운동을 간략하게 일지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운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 일지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고 각 계층에서 벌인 운동 중 여성들이 주도로 참여한 것 가운데 주요한 것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기층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이 여성운동의 범주로 설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여성운동의 잠재적 주체세력으로서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편집자주>

1.21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여성의 고용차별의 문제'에 대한 대화 모임 가짐.

1.25 81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주최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여성대표자 간담회'에서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한 '여성유권자 선언' 채택

1.26 대다수 부녀자를 포함한 목동주민 가옥주 300여명 시청앞 광장에서 농성, 세입자 500여명 시장의 구청방문 소식에 구청 집결.

2.25 목동주민 500여명 공사현장사무실에 집결, '생존권 보장', '선대책 후철거' '공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

2.26 청계피복 노동조합, 도봉구 창동에 일일제 탁아소 평화어린이집 개원.

3. 2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구로구 천왕동에 주일제 탁아소 보람의 집 개원.

3.2~3.6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노조원 및 부녀자를 포함한 가족들 1000여명 '지부장 부정선거 규탄' 농성·시위.

3. 8 여성평우회·또 하나의 문화 등 14개 여성단체 주최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 개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여성운동과의 연대를 확인하며, 한국여성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자 한 이번 대회에서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

성운동을 선언,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전체 여성들의 힘이 결집될 것 등을 주장함.

- 3.29 가톨릭여성농민회(이하 가여농으로 약칭), 한국가톨릭농민회(이하 가농으로 약칭), 한국기독교농민회 총연합회 (이하 기농으로 약칭) 등 3개 단체, 기자회견 갖고 '외국농축산물 수입중단 및 미국의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요구 철회' 주장.

4. 2 여성차별정년무효소송후원회 결성. 83년 국내 최초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정년 퇴직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전 교환원 김영희씨를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정년무효소송을 돕는 지속적인 후원모임으로 발전, 결성되었다.

- 4.3~4.4 서울 양동 철거민 300~500명 양동에서 철거반대 및 세입자 대책의 부당함을 걸고 연좌농성 시위.

4. 6 노동절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의 감시·미행을 받던 성도섬유 노동자 3명, 회사 식당에서 '부당해고 반대 및 기본급 10만원 보장,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요구하다 폭행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함.

4. 8 주부아카데미 산하 마당극모임 등우리, 주부의 가사노동을 다룬 마당극 「이 세계 절반은 나」 공연.

- 4.20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5부(부장판사: 유태현)는 이경숙씨(23세, 방일물산 영업부 사원)가,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후유증으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가해자 전정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평균 연령인 26세부터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여성회사원으로서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5세까지 뿐이며, 26세부터 55세까지는 일용도시여성근로자 일당임금 4천원으로 인정, 퇴직연령인 55세까지 회사원으로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요구액 3천5백여만원을 기각하고 8백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성 25세 결혼퇴직제'와 '주부가사노동가치 4,000원'을 정당화시킨 것임.

- 4.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경숙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인 25세 정년퇴직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 및 서명운동 전개.

— 여성평우회는 '결혼퇴직제를 정당화시킨 사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 '여성근로자의 결혼퇴직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가사노동을 최하위 생계유지 노동 즉 정부취로사업 노임인 4천

원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전근대적 결혼퇴직제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일체의 조기정년제 폐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서명운동 전개

5. 9 서울YWCA에서 여성정년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여성 25세 퇴직은 성차별발상이며 가사노동 댓가를 하루 4천원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
- 5.20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85 전국근로여성대회가 한국노총주최로 문화체육관에서 열림.

이번 대회는 대동놀이·조합원들이 직접 꾸미고 만든 마당극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문화를 부각시켰으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조건 시정하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임금, 불완전고용, 결혼퇴직, 조기정년 등을 즉각 시정하라'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성운동의 중심적인 추진세력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할 것' 등의 결의문을 채택.

- 5.23 가여농, 가농, 기농 '당면농민문제에 대한 1천만 농민의 주장'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 갖고 '농축산물 수입증지 규제 입법화, 소값 피해보상, 농가부채 탕감과 농민악법 개폐' 등을 요구.

6. 1 상마운수 소속 시내버스 안내양 130명 '자율버스 운행계획 철회' 요구·농성.

6. 6 여성개발원 해방 이후 여성활동사 정리한 첫 『여성백서』발간.

6. 9 여성평우회, 민중불교연합회 여성부를 비롯한 10개 여성단체 및 18개 대학 총여학생회는 성도섬유 해고노동자를 위한 복직추진위원회 구성, 성도섬유의 부당성에 대한 1차 성명서 발표.

- 6.16 여성의 전화, 개원 2주년 기념잔치

- 6.17 성도섬유 해고노동자 복추위, 성도섬유 해고노동자들 '툼보이 불매운동' 결의.

- 6.18 여성평우회, 민중불교연합회 여성부 등 10개 여성단체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18여개 여학생회와 성도섬유 해고근로자들, 종로 1가 툼보이 매장 앞에서 '툼보이 불매운동 적극 참여하자' '해고근로자 복직시키라'등을 요구하는 시위 벌임

- 6.22 여성평우회, '분단 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을 주제로 홍사단 강당에서 창립 2주년 기념대회 개최.

그동안의 여성운동이 분단시대의 민족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식을 결여한 점을 반성하며, 분단 유지의 구조적 원인을 여성문제의 입장에서 규명, 분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여성운동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을 주장함.

— 대우어패럴 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 조합사무실에서 연행, 구속됨. 조합

원 100 여명 작업을 거부하고 항의농성.

6.24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노동조합 조합원 1 천여명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구속에 항의하여 동맹파업.

6.25 남성전기, 세진전자, 롬코리아 노동조합 조합원 600 여명 동조농성 참가

—— 성도섬유 해고노동자 복추위, 기독교회관에서 성도섬유 톰보이 불매운동 확산대회 개최

6.27 효성물산, 청계피복 조합원 100 여명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서 농성.

6.28 부흥사 조합원 118명, '구속자 석방, 노조탄압 중지' 등을 외치며 파업 농성.

7. 6 한국노협 주최 12 개 단체 후원으로 동대문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전 YH 대의원 고 김경숙 동지 6주기 추도식 거행.

성도섬유 해고노동자 복추위 주최 간담회 개최.

7.8 ~ 16 대한마이크로전자 조합원, '노조탄압 항의' 노총회관에서 농성.

7.10 ~ 26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UN여성 10년"을 평가하는 세계여성대회 개최.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는 여성의 진전을 바탕으로, 가족문제·낙태·강간·매춘·저임금 등 모든 여성문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들이 발표되었으며, 인종차별주의, 정치폭력, 선진국의 경제적 독점과 지배, 군비경쟁 등이 여성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각기 자신들의 상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 문제가 되는 상황을 명시하고 극복전략을 밝힘.

7.15 5 개 여성단체,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이하 25 세 여조연으로 약칭) 구성.

여성의 전화·여성평우회 또 하나의 문화·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의 5 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취했던 관심과 활동들을 연합·조직화하기로 결정, 25 세 여조연을 구성.

본 연합회는 항소심에서 여성차별적인 부당성이 시정된 판례를 남기는 데 당면 목표를 두고 더 나아가 여성의 취업활동 실태, 직업의식, 조기정년제의 부당성, 가사노동의 본질과 실제임금 추정 등을 조사·연구하여 연속토론회 개최, 사회적 계몽과 여론 환기를 꾀하며, 연합활동을 통해 여성단체간의 연대의식을 다지며, 여성운동의 여러 과제들에 대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7.23 대우어패럴, 가리봉전자, 부흥사, 성도섬유 등 6 개 사업체 해고노동자들 노동자 연대투쟁연합 결성, '노동운동말살 정책을 분쇄하자'는 제하의 성명서 내고, 가

리봉 5거리에서 연좌시위.

8.15~16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여성대회 2,500 여명의 참가로 서울 영락교회에서 개최. '여성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라는 주제로 직능별·친교대회를 비롯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금식기도회가 있었다.

8.27 가농 경기연합회·가여농, 화성지역 농민대회 개최. 농민 500 여명 참가.

9. 4 재야 23 개 민중민주단체와 가여농·가농·기농 및 불안농민, 기자회견 갖고 '외국 농축산물 수입중단 및 소값폭락 피해보상과 농민운동 탄압말라' 성명 발표.

9. 6 가여농·가농·기농 '85년도 쌀수매에 관한 천만 농민의 주장' 발표: 쌀 1가마 (80 kg, 2 등품) 당 77,000 원 이상 요구.

9.10 25 세 여조연, 서울YWCA에서 25 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중 제 1 차 토론회 '여성노동현실과 여성운동' 개최. 생산직과 대졸여성 2 명의 사례 발표를 통해 여성조기정년제 및 기혼여성의 억압적인 노동현실에 대해 토론.

9.23 25 세 여조연, 25 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중 제 2 차 토론회 '조기정년제의 현실과 극복' 개최. 조기정년제의 실태와 현황, 조기정년제의 사회경제적 원인, 극복과 대응에 대해 토론.

전국의 9 개 가농 도연합회 후원으로 가농전북연합회 전북 전주에서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농민대회 개최.

9.2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제 22 회 전국여성대회가 '한국여성-UN 여성 10 년 이후'의 주제로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림

9.25 가여농·가농·기농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농민투쟁진상보고대회 개최.

9.26 여성의 전화, 성폭력간담회 개최.

10.8 25 세 여조연, 25 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중 마지막인 제 3 차 토론회 '가사노동과 여성운동'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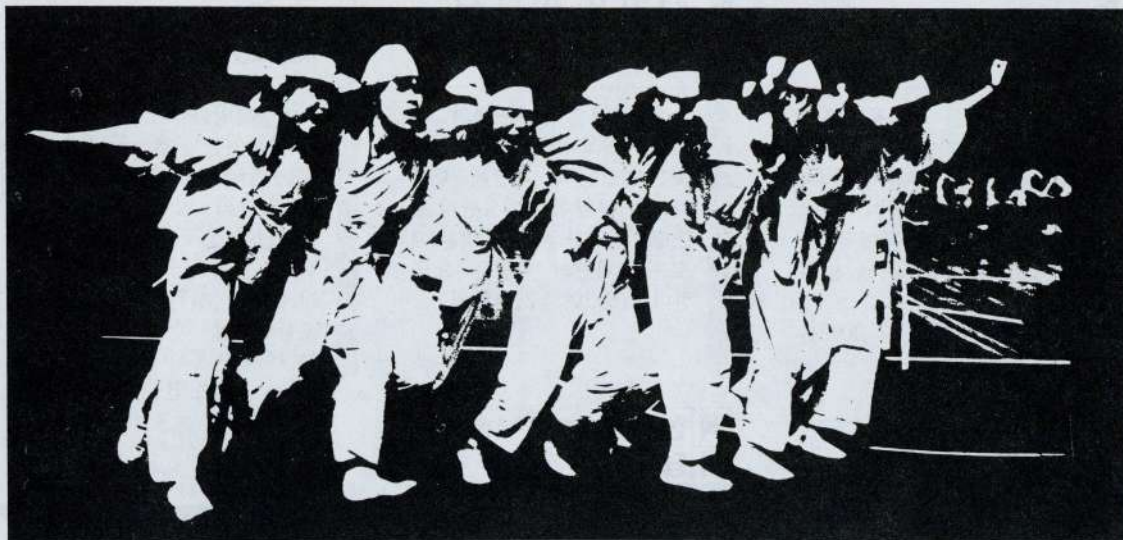
연속토론회를 마치면서,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모든 운동에 참여할 것' '남녀평등한 새민주사회건설에 앞장설 것' 등의 5 개항의 결의를 채택.

10.14 여성사회연구회 『여성신문』 발간. 『여성신문』은 도시가정주부를 독자층의 중핵으로 삼아,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비인간화를 고발·비판, 가정의 민주화와 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

11.1 여성평우회, '올림픽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제하의 공개질의서 발표. 미국의 스포츠 주간지에 실린 사진이 기생파티를 연상시키며, 실정에 맞지 않는 호화판 행사를 개최하는데 항의.

■ 캘린더를 만들고 나서

박 정 희



「시장」을 자주 찾는다. 「산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과일 한알로 실랑이를 벌이는 아줌마, 순대집 할머니의 칼소리에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다. 바닷바람과 더불어 갯벌에서 평생을 사는 어촌아낙네의 모습에서 느낀다. 가난은 떨쳐 버리고자 하던 질긴 몸부림을.

자신을 실현코자 가능성을 찾을 때, 그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사회구조의 모순 덩어리 속에서 여러 여성의 외침은 하나 되어 가고 있다.

「전국근로여성대회」에서의 큰 몸짓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 한다」고 인식시켜 주었다.

서로 부둥켜 앉고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던 대회장의 흥분. 지금도 가슴이 떨리운다. 그때의 그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되어진다. 그다지도 서러웠던가……

남 몰래 앓고 있을 그녀들의 작은 아픔까지도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 하나 되길 빌었다.

일련의 작업이 너무도 부족했음을 반성한다. 여러 현장에서 일체감을 가지지 못했고, 진실을 담기에는 사실을 너무 몰랐던 까닭에 그간 촬영을 도와주신 분들께 미안함을 느낀다. 이런 부족한 몸짓이나마 일과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우리네 여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백산문예 ①

미혼의 당신에게

다나까 미찌코 지음
김 희은 옮김

미혼여성들이여, 용기를 갖고 현실을 직면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가꾸자. 사랑을 풍부하게 키우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205면, 2,000원)

백산문예 ③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편집부 엮음

여성해방은 여성문제의 올바른 재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재고와 바람직한 여성관의 재조명, 진정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을 요구한다. (186면, 2,000원)

백산선서 ⑭

여성해방사상의 흐름

水田珠枝 지음/김 희은 옮김

여성해방사상은 남녀 '평등'과 '이질성'을 근간으로 하는 두 해방론으로 대별된다. 양자의 차이는 특히 남녀차별이 궁극적으로 물질생산 및 분배에서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성적분업문제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데서 비롯된다.

(192면, 2,400원)

백산
서당

종로구 무악동 11-8
● 313 / 2877 · 0295

올바른 여성운동을 위한 과학적 이론과 실천의 모색현장

창간호

여성

〈근간〉

여성 편집위원회 편

여성 억압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여성을 조건 지우는 중첩된 정치·경제적 메카니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여기 진정으로 해방된 여성,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해방된 인간·해방된 사회를 위해 올바른 시각과 실천을 확립하고자 하는 힘들이 하나로 결집되었다.

목 차

특집—허위의식과 여성의 현실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성차별교육

여성의 의식을 오도하는 대중매체

여성노동자의 노동의식과 노동세계

대담: 목동아줌마를 찾아서

여성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논단: 여성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문화비평:

여성해방관을 통해 본 김지하의 생명사상

억압적 삶의 비극적 해체

서평: 중국여성운동을 보는 두가지 시각

인물여성: 강주룡 일화

세계의 여성: 이란회교혁명 원년의 여성투쟁

여성관계 민요

여성관계 자료 목록(일제하편)

創作과批評社 362-7577
362-9867

도서출판

한울

이 펴내는

여성문제 시리즈

여성사회학

- 성차별의 사회학적 분석 -

女性社會學會 編
박 영 숙 옮김

●차례

서설 : 여성사회학의 성립과 현상

1. 여성해방운동의 문제제기
2. 사회학에서의 성차별주의
3. 여성사회학 이론의 구조
4. 성차별 이론화를 위하여

113면 · 1,400원

여성평우 제 4 집

- 남·여 평등한 통일민주사회로 -

●주요내용

- 한국여성운동의 재평가
- 좌담 : 가사노동의 본질 · 실태와 극복
- 여성운동의 현장
- 여성의 현실
- 여성운동의 흐름과 방향

〈근간〉

자본주의와 가사노동

조은 엮음
〈근간〉

한국노동여성론

조순경 · 이수자 외

제 3 세계의 국가자본주의론

本多健吉 · 조용범 공저
(3,300원)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김병오 지음
(4,000원)

모택동사상연구

尾崎庄太郎 外 · 정민 옮김
(2,000원)

37

38

39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억하는 여성이 기록하
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여성이 기록하
고 여성이 기억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하는 여
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
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도서출판

한울

여성평우회

The Women for Equality and Peace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유로 예측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강요해왔다.

오늘날, 한국여성은 가부장적 제도의 희생자요, 산업사회의 소외된 계층이고, 국토분단의 비극적 피해자이다.

우리 여성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여성은 서로의 처지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한다.

여성운동은 전 여성의 인간화 운동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비인간 요소를 타파하려는 총체적 운동이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

이를 위해서, 한두 사람의 역량보다는 모든 여성의 공동적인 협조와 노력을 중시하고자 한다.

우리 여성이여, 모두 단결하여 여성의 인간화 운동에 앞장서자!

— 여성평우회 발기취지문 중 —

이러한 취지하에 1983년 6월 18일 발족된 여성평우회는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출판홍보사업, 공부방 운영 및 상담사업,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이다.